

실패의 정치가 아닌 변화의 정치를, 기본소득당이 지금 시작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상임대표

-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 원 기본소득을!
- 빅데이터 시대, 디지털 공통부 배당으로 데이터 주권을!
- 1인 가구 600만 시대, 개인이 중심이 된 새로운 사회계약!
-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배당으로 생태적 전환을!
- 자동화의 시대, 기본소득과 함께 주 30시간 노동 사회!

지난 9월 8일,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건 한국 최초의 원 이슈One-Issue 정당,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며 제시한 5대 핵심 정책입니다.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건, 그것도 이름부터 기본소득을 내건 정당이 등장한 것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기본소득이 한국의 공직자

선거에 처음 소개된 지 12년 만입니다. 지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본소득에 대해 알리고 정치 운동을 통해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의 노력을 담아,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은 정당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에 대한 논의는 올해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점점 뚜렷해져만 가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 속에서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모아 기본소득을 실현할 기본소득 중심의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부터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진보정당 안에서 시작된 ‘기본소득당’에 대한 논의는 처음에는 몇 가지 제안에 그쳤지만, 당명을 바꾸는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점차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시대 인식과 대안 논쟁으로 점차 진지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이고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한 주도적인 대응과 대안 제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들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결정적 차이들을 확인하면서 기존의 정당 안에서 진행된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첫 번째 논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도, 기본소득으로 타고 넘자

하지만 ‘기본소득당’이 제안되었던 배경인 새로운 변화의 파도는 여전히, 그리고 어느새 우리 발아래에 도달해 다리를 적시고 있습니다. 차치하면 파도에 쓸려 가 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에게는 제대로 된 상황 인식과 적절한 대처 방법이 필요합니다. 들이치는 파도를 막고자 하는 완고한 방식으로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연하게 파도를 타고 넘는 것이야말로 현실 가능한 대안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당도한 파도는 ‘노동의 축소’, ‘일자리의 급감’, ‘이로 인한 소득의 감소’ ‘양극화 심화’ 등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 없는 사회’에 대한 공포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정치는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낡은 방식의 해결책만을 고수해 왔습니다. 보수정치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에만 더 많은 지원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보정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못 본 척하며, (97년 IMF 이후 모든 정권이 다 추진하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일자리 창출’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그저 ‘금배지’를 유지하기 위한 혹은 ‘금배지’를 달기 위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수, 진보, 기존의 정치, 그 어느 곳에도 우리의 삶은, 사회의 변화는, 미래의 대안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구도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상상력이 정치라는 무대에 등장해야 할 때입니다. 유일한 소득의 원천이었던 일자리가 줄어들 때 ‘공통의 부’라는 새로운 소득의 원천을 찾아낼 수 있는 상상력, 노동이 축소될 때 임금노동을 하지 않아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상상력, 점점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해질 때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쉽게 해소할 수 있는 상상력 말입니다.

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상상력으로 ‘기본소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기본소득당’이라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두 번째 시도를 시작합니다.

창당이라는 쉽지 않은 도전, 그러나 ‘기본소득’이라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자 모인 사람들

지난 8월 24일, 기본소득당 창당을 위한 첫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국 10개 시/도에서 50여 명이 모여 새로운 정당 기본소득당은 어떤 모습일지,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입장과 계획은 어떠한지, 기본소득당 창당을 위한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내용과 일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7시간 동안 진행된 워크숍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기본소득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각자의 이유,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꼭 창당되길 바라는 이유를 품고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인류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다. (중략)

오늘,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민주공화국의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기본소득당’ 설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후략)

기본소득당 창당을 위한 워크숍을 마치고 정확히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청년, 여성, 장애인, 주부, 시민활동가, 청소년, 실업자, 농민, 자영업자, 대학생, 노동자, 언론인, 의사, 예술인, 라이더, 연구원, 작가, 영화감독 등 600명이 넘는 분이 기본소득당 창당에 발기인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서울시 마포구에서 진행된 기본소득당 창당 발기인대회에 150여 명의 발기인이 모여, 인간으로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제도는 매우 불평등합니다. 우선 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5개 이상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인구가 1,300만 명인 경기도에서도, 인구가 2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전남에서도 똑같이 1,000명을 모아야만 광역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정당'이라는 공식적인 제도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마주치는 첫 번째 장벽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0월 말까지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 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까지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내년 4월 15일에 진행되는 21대 총선에 지역구선거와 비례선거 모두 후보를 내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의 바람을 일으켜 21대 국회에 진출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지금의 정치제도를 고려했을 때 창당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기본소득당이 어엿한 정당으로 자리 잡은 사회, 그리고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개

별적인 기본소득이 실현된 사회를 상상하게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한 장 만들지 못하고 가장이 벌어오는 돈에 의존하며 자신을 위한 여행 한 번 마음 편히 가지 못하는 기혼 여성의 삶이,

직장과 가정에서 이중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 많은 여성의 삶이,

고된 장시간 노동으로 자신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는 많은 노동자의 삶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일할 수 없는 몸이라는 이유로 시설에 갇혀야만 하는 장애인들의 삶이,

땀별 아래에서 흙을 일구지만 푹하면 밭을 갈아엎고 빈곤 속에 살아야 하는 농민들의 삶이,

4평짜리 감옥 같은 원룸을 전전하면서 비싼 월세에 괴로워하는 청년들의 삶이,

불확실한 미래에 현실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삶이,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면서도 저임금의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이,

‘사장’ 이지만 온종일 일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삶이,

원래 예술의 길은 배고프다는 말을 웃으며 해야 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삶이,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인 기본소득이 실현된 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하다 보면,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과 미래 역시 그려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기본

소득당'은 급격한 사회 변화의 물결 속에서 빈곤, 불안정, 사회적 관계의 억압 속으로 더욱 내몰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꿀 중요한 상상이자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온 국민에게 기본소득 6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해 강제된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아닌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갑시다.

플랫폼 시대의 원유와도 같은 빅데이터를 통해 만들어 낸 이윤에 대해 디지털 공통부 배당이라는 우리의 정당한 몫을 요구합니다.

1인 가구가 600만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가구'를 중심으로 한 낡은 제도와 구조는 사회가 요구하는 '가구'를 구성하지 못한 이들을 배제하고, 또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을 통해 '개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 갑시다.

기후위기 역시 이미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탄소 배출로 기후위기를 불러오면서도 생산과 탄소 배출을 통해 만들어낸 이윤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에 탄소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별적이고 무조건적인 탄소배당을 지급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태적 전환을 만들어 갑시다.

누군가는 너무 길게 일하고 누군가는 일자리조차 갖지 못하는 지금,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기본소득과 함께 주 30시간 노동의 실현으로 일자리는 나누고, '과로'는 지우고,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 갑시다.

기본소득이라는 상상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더 자유



(양희석 제공)

롭고 평등한 변화를 가능하게 할 시작이 될 것입니다.

파도를 막는 호미가 아닌, 파도를 일으키는 태풍이 되자

우리가 삶을 영위해 온 기존 방식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회의 변화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호미로는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가래로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호미로 막으려는 정치나 밀려오는 파도를 못 본 척하는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실패가 아닌 변화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낡은 것들을, 우리를 가로막고 엮매고 있는 것들을 끌어 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파도를 일으키는 태풍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꿀 태풍이 될 기본소득당에 함께 주세요. www.basicincomeparty.kr. 